

수리 중인 컨테이너선박 화물창 바닥으로 떨어짐

< 재 해 개 요 >

2022. 2. 19.(토) 09:15경 경남 소재 000 사업장 플로팅 도크에 입항하여 수리중인 컨테이너선박 화물창에서, 피해자가 화물창 격벽(BulkHead) 내부 통로에 설치된 안전난간 교체작업 준비 중 화물창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

□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 : 떨어짐 / 사망 1명



【재해 발생 장소】

□ 재해발생대책

○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철저

- 안전난간의 일부구간이 부식되어 결손(파손)되어 있는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또는 이동하는 경우에는,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
- 다만,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, 부착설비에 걸어 사용하게 해야 함

○ (기술적 권고)수직사다리 추락방지조치 강화 실시

- 수직사다리에서 안전난간까지 수평거리가 1.5m 이하인 경우, 안전난간을 위쪽 방향으로 연장 또는 등받이 울 구조를 아래 방향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함

※ 수직사다리 설치방법 등 세부조건은 KOSHA GUIDE 및 KS 기준 참조

본 속보는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조선업재해예방센터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종 시설의 자체점검 및 적절한 조치실시, 근로자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 바랍니다.
 인터넷 주소 www.kosha.or.kr/자료마당/재해사례/국내재해사례/조선업 클릭